



# “콘센트에 달린 버튼만 누르면 플러그 분리”

“발가락으로 콘센트에 달린 버튼만 누르면 플러그가 빠져 너무 편리해요.”

‘누르면 빠지는 콘센트(누빠콘)’의 사용후기다. 50원짜리 만 한 버튼을 누르면 ‘복’ 소리를 내며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튀어나온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플러그를 분리할 수 있다. 한 손으로 플러그를 잡고 콘센트를 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지난 5월 한홍쇼페널에서 단 한 차례 방송한 뒤 5700만원여치가 팔렸다.

◆프랜차이즈 대표에서 발명가로 김오중 누빠콘 대표는 아주유통 대표이기도 하다. 아주유통은 ‘아주커치킨’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다. 광주·전남 지역에만 96곳의 가맹점을 둔 지역 최고 치킨 브랜드다. 적은 힘으로도 번리되도록 한 것이다.

◆안전성도 강화했다. 한쪽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을 넣어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는 제품 개선이 완료되자 2013년 누빠콘을 설립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개선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라며 “여러 번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오래 써도 고장이 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선 거듭해 명품 제품으로” 누빠콘 사용율 82%가 만족한다

점이 많았지만 김 대표의 눈에에는 기존 제품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맹점 사업을 통해 냉장고와 조리기계 등 전자기기의 콘센트 탈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기전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려면 매번 콘센트를 분리해야 하지만 꽤 번거로운 일이었다.

오래 써도 고장 없어 행복한백화점서 판매 대형마트에 곧 납품 매립형 제품 출시 예정

특허를 인수한 뒤 지렛대 원리를 제품에 적용했다. 적은 힘으로도 번리되도록 한 것이다.

안전성도 강화했다. 한쪽 콘센트 구멍에 젓가락을 넣어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는 제품 개선이 완료되자 2013년 누빠콘을 설립했다. 김 대표는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동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개선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라며 “여러 번의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오래 써도 고장이 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선 거듭해 명품 제품으로” 누빠콘 사용율 82%가 만족한다



김오중 대표가 누빠콘의 작동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지수 기자

는 반응을 내놨다. 김 대표가 올 초 한국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다. 긍정적인 결과지만 그는 나머지 18%에 주목했다. 버튼을 눌렀을 때 플러그가 너무 높이 튀어 오른다는 의견이 김 대표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는 제품이 더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설계를 바꿨다.

다. 한 달여를 작업실에서만 보냈다. 누빠콘은 9월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우수중소기업 전문 쇼룸을 행복백화점에 입점했다. 이따부터는 한 대형마트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건설업에 종사했던 시절을 가장 큰 경험으로 꼽았다. 그

가 1969년부터 20년간 운영한 건설 회사는 주로 상수도관 공사를 맡았다. 그는 “당시에는 상수도관 교체하려면 단수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컸다”며 “물을 끊지 않고도 수도관 공사를 하는 방법과 기구 등을 연구하는 등 항상 개선점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누빠콘의 후속 제품도 구상 중이다. 매립형 콘센트에 누빠콘의 원리를 적용하는 중이다. 그는 “늘 소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개선을 거듭해 최고의 명품 콘센트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 ◆고-골프거리 측정기 070-4228-1711 △하나텔콤-아이빔 블랙박스 (031)427-0611 △다나로-구-뷰메이트 (031)704-8951 △유티엘코리아-증강현실 기술 이용한 3D 팝업북 (02)2058-2829

## 고졸도 차별없이 임원되는 中企

두림로보틱스의 ‘학력파괴’ 실험이든 대졸보다 우대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고졸이라도 성실하게 실력을 쌓으면 4년 뒤 대졸자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화성의 강소기업 두림로보틱스 박상백 사장(53·사직)의 경영방침이다. 자동차 도장로봇을 제조하는 두림로보틱스는 국내 시장을 독점하던 독일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 내수 시장을 대부분 장악한 데 이어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이 회사의 올해 예상 매출은 1200억원에 이른다. 작년 매출(730억원)보다 64% 늘어난 것이다. 매출 가운데 수출 비중이 60%에 달한다. 박 사장은 “멕시코 중국 등으로의 수출이 활발해져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대우도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다. 대졸자가 몰려올 만하다. 하지만 박 사장은 굳이 대졸자를 골라 채용하지 않는다. 그의 경영방침은 ‘간판보다 실력과 성실성이 중요하다’로 요약된다. 이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대졸자와 고졸자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훈련을 받고 업무를 배정받는다. 4년 뒤 고졸자가 대졸자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으면 대졸자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

이 회사의 박돈석 이사가 그 예다. 박 이사는 선형기술 팀 설계팀 품질관

리팀을 이끌고 있는 기술1실장이다. 제품 품질과 미래기술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고 있다. 그의 학력은 충남 홍성고 졸업이 전부다. 서해공업, 만도기계 등에서 가전제품용 도장시스템을 다루다 2001년 경력직 채용을 통해 두림로보틱스에 입사했다. 이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품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다. 그가 입사한 2001년은 냉장고 등 가전제품용 도장 자동화설비 유통을 하던 두림로보틱스가 자동차용 도장시스템을 공급하며 혁신을 꾀하던 시기였다.

박 이사는 2003년 중국 창첨자동차에 완성차용 도장시스템을 공급하며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했다. 당시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중국에서 독일이나 일본기업처럼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고 무시당하면서도 묵묵히 6개월 이상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운전하며 신뢰를 쌓았다. 박 이사는 “브랜드는 떨어지지만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오로지 기술과 현장경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박 이사 같은 마이스터(당)가 두림로보틱스가 추구하는 인재상”이라며 “현장직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현장 장인들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 로봇도장전문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다.

김박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중견제약사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아요”

### 뉴스카페

“한발 더 뛰면 그만큼 여러분이 가져갈 몫이 커지는 겁니다.”

중견제약업체인 삼진제약 이성우 사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는 만큼 보상해주겠다”는 말로 영업을 독려한다. 이 회사의 대학 졸업 신입사원 연봉은 4570만원으로 업계 최고다. 제약업계 1위인 유한양행의 대졸 초임이 4300만원 대인 점을 감안하면 과격적이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매출 2013억원에 영업이익 316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다양한 복지 덕분에 이 과장급 이상만 되면 거의 회사



를 옮기지 않아 이직률이 다른 업체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대원제약도 대졸자 신입 연봉이 4000만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견제약사가 적지 않다.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 있는 중견제약사들은 개량신약 등 특화된 경쟁력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게 공통점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복지 제도 덕분에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원제약 신입사원 공채 경쟁률은 100대 1에 이른다. 이 회사는 자녀 대학학자금뿐 아니라 유치원 비용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잇몸치료제 ‘이가탄’을 판매하는 명인제약도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3900만원에 달하는 ‘알짜 회사’로 유명하다. 고졸 신입직원의 급여도 3500만원대에 달한다. 향정신성 전문의약품 비중이 높은 명인제약은 지난해 매출 1319억원에 영업이익 303억원으로 영업이익률(23%)이 업계 최고 수준이다.

김병호 기자 chsan@hankyung.com

## “韓·美 경영 장점 결합한 기업이 정신 필요”

###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한국식 경영의 핵심인 열정과 속도에 미국식 경영의 장점인 합리성을 결합한 새로운 기업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 “한국경영연구” 개소식에 참석해 “빠른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이 정신인 K-엔터프라이저십(K-Entrepreneurship)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영연구소는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 원동력인 한국식 경영방식과 미국 경제의 합리적 경영방식을 접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싱크탱크 역



할을 하게 된다. 미국 내 연구기관 최초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기업이 대한 집중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공은 산업이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경제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 린다 리빈스틴 조지워싱턴대 경영대학 학장 등 경영학계와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윤준 기자 junyk@hankyung.com

### 모십니다

## 유럽 선진 요양시설 연수단 모집

한국경제신문은 요양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유럽 선진 요양시설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합니다. 유럽의 요양 관련 정책 브리핑과 요양료료 전문장비·용품 제조업체 견학 등을 통해 선진국 요양산업 벤치마킹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운영 노하우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번 연수에 많은 참가 바랍니다.

주요 방문기관: 독일 프랑크푸르트노인요양협회, 독일 숲속요양마을 세바티움, 스위스 요양시설 알트슈타인 레부스, 오스트리아 빈시 노인복지시설, 유럽 요양의료 장비회사 등 ●참가대상: 시설요양사업 운영자, 재가사업 운영자, 방문간호사업 종사자 등 ●참가신청 마감: 10월22일 ●연수비용: 429만원 ●접수처: (02)360-4881 한경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hankyung.com)

●연수일정: 11월9~16일(6박8일) ● 주최: 한국경제신문

## 회사를 살리는 비용절감

### 한국경제신문

## 한경 비용절감 공개 교육

비용절감 이론과 실제 사례 중심 교육  
각 기업의 전문 비용절감매니저(CRM) 양성 = CRM이란? Cost Reduction Manager  
건설팀 등을 활용한 기업비용절감 코칭

### 기업 비용 절감 현장교육

- 비용절감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대상 교육 진행
- 실제 컨설팅 사례를 적용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비용절감 방법 제시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비용 절감 방안 도출

1. 기업 비용 문제를 현장에서 사례 토대로 직접 진단/해결 방안 제시
2. 비용절감 TFT 구성하여 단계별 비용 절감 실행 방법 안내
3. 교육 후 비용절감 모니터링/상담 진행

교육대상: 비용절감 프로젝트를 계획중인 기업 실무자  
비용절감 매니저 할당이 필요한 임직원

교육일정: 1일 8시간 과정 (기본 1인원 20인 이하)

교육비: 280만원

교육문의: 02)574-6112, http://ac.hankyung.com

최고의 비용절감 파트너  
코스트제로 COST ZERO

##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초빙 공모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도교통부 산하 중정부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도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며, 국도·교통 신기술의 인증을 위한 심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현 비상임이사의 결원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상임이사를 초빙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및 인원: 비상임이사 O명(임기 2년)
2. 자격요건
  -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비상임 이사로서의 아래의 능력을 갖춘 분
    -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
    - 경영성과 도덕성 등 전인적 윤리관
    -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장문 제2조에서 정한 경력사유가 없는 분
3.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 제출서류는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uia.re.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4. 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2015. 10. 13(화)~10. 27(화) 18:00까지 (보편요일은 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 우편접수: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서면대로 286 송백빌딩 5층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경영지원실
    - 이메일 접수: zecrecuti@kulia.re.kr
  - 제출방법: 정본 또는 활자우편, 이메일 제출(접수여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5. 심사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6.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진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결정까지 1달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임명권자가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형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경영지원실(☎ 001-385-6424)으로 문의하십시오. 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ulia.re.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인 및 수의자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간접부지사(신원동) 제49조 4항 및 폐쇄기간 설정 공고  
직접부지사(신원동) 제51조 5항에 의거하여 2015년 11월 30일 현재 수의자명부의 폐쇄기간이 종료되는 수의자명부 폐쇄기간을 부여하며, 관련수익자 확보를 위하여 2015년 11월 30일에 수의자명부 폐쇄기간이 종료되는 수의자명부 및 관련수익자 확보를 위하여 폐쇄기간을 설정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송파로50 길은로7길길55호  
“간접부지사(신원동) 제49조 4항에 의거하여”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대표이사 문미숙

수의자명부관리기관 한국채굴협회 서울 규조초

---

## 제로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015-733호  
사서문역시공인 조상기개발정착최초 열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973-46호(1973.11.22.)로 도시계획시설(공용)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73-32호(1973.11.29.)로 공익조성계획 및 열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호(2014.2.6.)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된 중구 필동 5 (의주로2가) 일대 사서문역시공인 조상기개발정착최초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 및 “도시계획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공용명): 사서문역시공인
2.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5 (의주로2가) 일대
3. 면적: 21,363㎡
4. 조성계획결정(안)
  - 가. 공적면적: 21,363.00㎡
  - 나. 주요시설: 전입방울, 기념방울, 산책로, 수로, 원초목, 휴게소, CCTV 등
5. 판매대상: 열람대상외 비적
6.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5지하 (☎3326-5852)
8. 본 조성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